영암군민속씨름단, 민속씨름 3차대회 금강장사 · 백두장사 배출

최정만·장성우 선수, 역동적·화려한 씨름 선보여

영암 특산품 매력한우·달맞이쌀 등 시청자에 각인

영암군민속씨름단은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평창군씨름협회에서 주관하는 제3차 민속리그 2020평창평화장사씨름대회에서 또다시 금강장사와 백두장사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강원 평창군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에서 열린 제3차 민속리그 2020평창평화장사씨름대회 중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지난 17일 열린 금강장사결정전에서 최정만 선수가 금강장사에, 19일 열린 백두장사결정전에서 장성우 선수가 백두장사에 등극해 씨름 강군으로서 영암군의 명성을 드높였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최정만 선수와 장성우 선수는 탁월한 실력을 바탕으로 하여 역동적이고 화려한 씨름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를 통해 영암의 특산품 매력한우, 달마지쌀 등 우수농축특산물을 시청자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면서 지역 홍보도우미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2017년 창단 이후 이번 대회까지 총 26회 장사 배출, 전국체전 2회 금메달 획득의 성과를 거두며 씨름판의 절대강자로 자리하고 있다.

김기태 감독은 "그동안 보내주신 영암군민들과 팬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고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영암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방역치침 준수를 위하여 현장에 참석하진 못한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 최정만 선수, 장성우 선수의 장사 등극을 통해 영암군민속씨름단이 한국씨름의 주역임을 다시한번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지친 영암군민에게 작은 안위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영암군은 대한씨름협회의 씨름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는 시책 추진으로 영암군민속씨름단이 한국씨름과 영암군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왼쪽부터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최정만 금강장사, 장성우 백두장사.

맨체스터 접수 손흥민…맨유 잡고 '맨시티 킬러'까지

올 시즌 맨유전 '멀티골' 이어 맨시티전 '결승골'

한국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28·토트넘)이 이번 시즌 영국 맨체스터를 접수했다.

토트넘은 22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치른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의 2020~2021시즌 EPL 9라운드 홈 경기에서 손흥민의 결승골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개막전 에버턴전 패배 이후 8경기 연속 무패행진(6승2무)을 달리며 승점 20점으로 레스터시티, 첼시(이상 승점 18)를 따돌리고 리그 1위에 올라섰다.

A매치 후유증으로 인한 우려에도 강호인 맨시티를 잡으며 선두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성공했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 5분 만에 맨시티 골망을 가르며 지난달 27일 번리와 6라운드 이후 정규리그 3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손흥민은 탕귀 은돔벨레가 절묘하게 찔러준 로빙 패스를 폭발적인 스피드로 잡은 뒤 왼발 슛으로 맨시티 골망을 갈랐다. 토트넘은 이후 지오바니 로 셀소의 추가골을 더해 맨시티 추격의지를 꺾었다.

이로써 손흥민은 리그 9호골로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제이미 바디(레스터시티), 도미닉 칼버트-르윈(에버턴 이상 8골)을 제치고 득점 단독 선두에 등극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오스트리아 원정을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됐던 손흥민은 다행히 음성 판정 끝에 맨시티전을 선발로 뛰었다.

벤투호에선 선수 7명과 스태프 3명 등 총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카타르전 직후 코로나19에 추가 감염된 황희찬(라이프치히)과 포옹 세리머니를 해 초비상이 걸린 상태였다. 하지만 소속팀 토트넘의 전세기 후송 작전 등 철저한 관리 속에 맨시티전 승리의 영웅이 됐다.

맨체스터를 접수한 손흥민이다. 그는 지난 10월5일 올드트래포드에서 치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의 정규리그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토트넘의 6-1 역사적인 대승을 주도했으며, EPL 진출 후 맨유를 상대로 터진 첫 득점포이자 유럽빅리그(정규리그) 통산 100호골을 달성한 경기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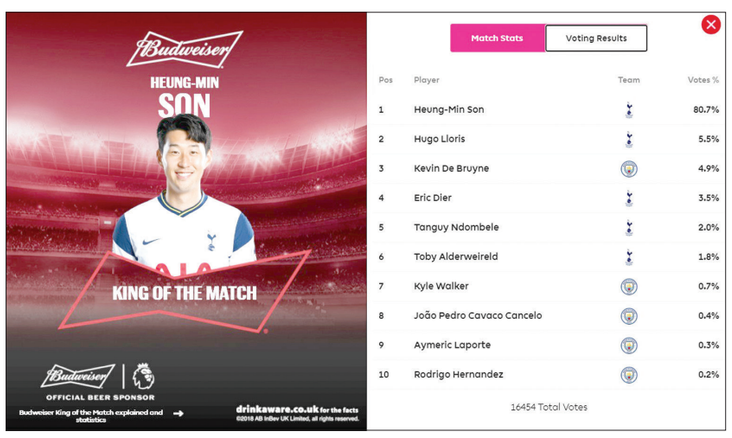
처음으로 맨유를 격침한 손흥민은 '맨시티 킬러'로서 명성도 이어갔다.

손흥민은 최근 맨시티를 상대로 5경기 5골을 기록 중이다.

지난 2018~2019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 1, 2차전에서 총 3골을 시작으로 2019~2020시즌 25라운드에서도 맨시티를 상대로 골망을 갈랐다. 모든 대회 통틀어 6골째며, EPL에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를 상대로 손흥민보다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제이미 바디(레스터시티·9골)가 유일하다.

뉴시스

손흥민, 80.7% 압도적 지지로 MVP 선정…세번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득점부문 단독 선두로 올라선 손흥민(토트넘)이 시즌 세 번째로 경기 최우수선수(MVP)인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다.

EPL 사무국은 22일(한국시간) 토트넘-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킹 오브 더 매치'로 80.7%의 지지를 받은 손흥민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이날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맨시티와의 2020~2021 EPL 9라운드에서 경기 시작 5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리그 9호골로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제이미 바디(레스터 시티), 도미닉 칼버트 르윈(에버턴·이상 8골)을 제치고 득점 단독 선두에 올랐다.

손흥민이 팬 투표로 선정하는 '킹 오브 더 매치'에 이름을 올린 건 4골을 몰아쳤던 사우샘프턴과의 2라운드, 결승골을 넣은 번리와의 6라운드 이후 세 번째며, 손흥민은 평점 7.4점을 받아 해리 케인, 에릭 다이어와 토비 알더베이럴트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뉴시스

추락하는 바르셀로나…10년 만에 AT마드리드에 패배

메시와 그리즈만 불화설…29년 만에 최악 시즌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가 10년 9개월 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AT마드리드)에 패하며 또 추락했다.

바르셀로나는 22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안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치러진 AT마드리드와의 2020~201시즌 프리메라리가 1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1로 졌다.

이날 패배로 바르셀로나는 3승2무3패(승점 11)를 기록하며 10위로 내려갔다.

유럽통계업체 옵타에 따르면, 바르셀로나가 정규리그 개막 이후 8경기에서 승점 11점에 그친 건 1991~1992시즌 이후 29년 만이다.

AT마드리드에도 정규리그에서 지난 2010년 2월 1-2 패배 이후 10년 9개월 만에 무릎을 꿇었다.

동시에 모든 대회에서 이어왔던 AT마드리드전 20경기 무패행진(14승6무)도 깨졌다.

반면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잡은 AT마드리드는 승점 20점을 기록하며 선두 레알 소시에다드(승점 20)와 골득실까지 동률을 이뤘으나, 다득점에서 밀려 2위에 자리했다.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이던 로날드 쿠만을 데려와 새 시즌을 시작한 바르셀로나는 시즌 초반 리오넬 메시의 이적 파동에 이어 최근엔 메시와 앙투안 그리즈만의 불화설까지 퍼지며 흔들리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남미예선을 치르고 돌아온 메시는 스페인 공항에서 그리즈만과의 불화설에 대한 질문을 쏟아지자 "바르셀로나 문제가 왜 항상 내 잘못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어수선한 팀 분위기는 경기력까지 이어졌다.

바르셀로나는 후반에 필리페 쿠티뉴를 교체로 투입하며 변화를 줬지만, AT마드리드 골문을 여는 데 실패했다.

뉴시스

벤투호 '코로나 확진' 선수들, 전세기로 26일 귀국

내일 전세기 투입

태극전사들이 유럽 원정 평가전에 나선다. (사진=대한축구협회)

한국 축구대표팀의 오스트리아 원정 2연전에 참가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지에 격리된 선수들이 전세기를 타고 26일 귀국한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멕시코, 카타르와 평가전을 마치고 오스트리아 빈의 숙소인 래디슨블루 파크 로열팰리스 호텔에 격리 중인 대표팀 선수단 및 스태프를 이송하기 위한 전세기 투입 일정이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축구협회가 준비한 전세기는 24일 정오 인천공항을 출발해 오스트리아로 향한다. 다음날 25일 현지시간으로 정오에 선수와 스태프를 태우고 출발해 26일 오전 6시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전세기는 협회의 공식 파트너사인 아시아나항공 보잉777이며, 비용은 협회가 부담한다.

전세기에는 골키퍼 조현우(울산)를 비롯해 이동준, 김문환(이상 부산), 나상호(성남) 등 선수 4명과 확진 스태프 3명까지 총 7명 그리고 이들을 돌봐온 밀접 접촉자(스태프) 8명까지 총 15명이 탑승한다.

단 황인범(루빈카잔)은 소속팀에서 복귀를 희망해 23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한 차례 더 받은 뒤 전세기 탑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음성 판정을 받은 나머지 인원은 감염 방지를 위해 방호복과 마스크, 글러브 등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하고 탑승한다.

협회 관계자는 "방역 당국과 논의를 통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함께 항공기를 타고 귀국할 경우 발생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방호복을 입고 전세기에 동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안전한 이송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와 방역 경험이 있는 의료진을 전세기에 태우기로 했다.

전세기가 26일 도착하면 확진자들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송된다.

현지에 남아있는 코로나19 확진자 8명 중 5명은 현재 약제로 조절이 가능한 증상으로 대표팀 주치의가 관리 중이다.

오스트리아 현지 의료진의 진찰을 통해 현 상태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 홍명보 전무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선수들과 스태프가 국내로 입국할 때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코로나19 추가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미희 기자